

發明事業의

保護育成을 爲하여



大韓發明協會長 朴 魯 陽

한나라의 復興은 科學技術의 發展으로 經濟安定이 이룩되고 國民所得이 增加되어 國家의 復興을 이루게 되는 것이나,

科學技術의 發展은 오직 그나라 國民들의 頭腦資源의 開發과 發明考案을 獎勵함으로써 그 民族國家의 隆盛과 富強을 招來하여 왔음은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며 더우기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發明科學이 產業發展에 가장 先導的 役割을 하고 있음은 아무도 否認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發明科學은 한 나라의 富強한 民族이 興亡盛衰에 크게 影響을 가져 온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할 때 우리 民族도 悠久한 歷史와 燦爛한 古代支明을 자랑하며 많은 發明考案으로 裝飾하였다는 歷史的 事實은 그만큼 우리 民族이 先天的으로 發明考案과 着思創意性에 天賦의 材質을 지니고 있는 優秀한 頭腦의 所有者라는 것을 證明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現代史는 우리들을 極히 不幸한 位置에 處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말할나위도 없이 現代文明이 황홀하게 開花할 가장 重要한 時期에 있어 日帝의 苛酷한 植民地政策下에 36間이란 긴 歲月을 民族이 優秀한 科學發明의 發展과 그 伸長을 阻害當하였다는 事實입니다.

그 동안 西歐諸國이 急進的인 發明科學의 發達로 오늘에 있어 世界으로 富強한 國家隊列에 君臨하고 있는 事實은 더욱 우리 民族에게 長歎과 痛奮을 禁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韓國은 民主友邦의 協助의 國

民의 克己心, 忍耐力과 民族自立精神의 昂揚等으로 世界屈指의 國防力을 保有하게 되었고 世界萬邦에 크게 國威를 宣揚하게 된것은 多幸이라 하겠으나 우리의 經濟的 貧困은 우리에게 아직도 民族의 國家의 不退을 안겨놓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產業의 不運은 經濟的 落後性을 完全히 脫皮 못하고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現實이 아닙니까 이에 政府에서도 經濟的인 落後性과 後進性을 脫皮하기 爲하여 經濟開發의 새로운 5個年計劃과 生産輸出 等の 增強等 強力한 經濟復興策을 樹立 遂行中에 있음은 來日의 富強한 祖國을 爲하여 크게 期待되는 바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國家政策에 있어서 온 國民이 舉民一致 合心協力하여 經濟復興의 國家至上目標을 向하여 邁進하여야만 우리는 勿論 後世의 子孫들이 代代로 福된 삶을 營爲 할 수 있는 굳센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 確信하는 바입니다.

如斯한 經濟開發의 總力戰에 있어 가장 比重이 크고 急先務가 되는 것은 온 國民의 精神武裝은 勿論 前述한 發明科學의 急進的인 發展策이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現時代는 必야호로 科學發展時代입니다. 科學은 生産이고 生産은 富強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發明考案은 科學의 母胎라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時間의 躊躇함이 없이 다만 우리겨레 우리 發明人들의 優秀하고도 豊富한 頭腦資源을 開發하여 하루속히 產業復興과 經濟的 發展을 가져오는 것만이 國家民族의 繁榮을 爲한 捷徑이라 하겠음

니다. 그러므로 再論한 必要도 없이 우리의 活路는 産業復興과 經濟發展의 길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無窮無盡한 無形의 資産인 頭腦資源을 發掘하며 産業的發明을 指導育成할 必要性을 強調코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韓國의 數 많은 發明人들은 훌륭하고 産業的 價値性이 높은 發明考案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大多數의 發明人들은 經濟的으로 貧困하기 때문에 企業化할 經濟的能力이 없는 極히 不遇한 處에서 彷徨하고 있는 現實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有能하고 死藏된 發明考案品을 企業化시켜 빛을 보이게 하는 것만이 産業의 發展과 經濟復興을 가져오는 捷徑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政府는 이들이 當面한 現實을 直視하고 國家産業發展의 見地에서 積極的인 支援을 하는 한便 一般企業家들도 發明事業에 積極參與하여 우리의 當面한 民族課業遂行에 總進軍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욱 具體的인 發明事業의 指導育成策에 있어 政府는 優先的으로 發明人들에 對하여 다른 先進國들과 같이 發明人의 立場을 再三 認識하고 새로운 處遇와 特別한 獎勵策이 保求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爲하여 現在까지 等閑視해오던 發明人들에 對하여 研究費의 補助와 企業資金의 融資 및 優秀發明品에 對해 免稅措置等을 爲先的으로 取扱해 주어야 할 것이며 産業的 優秀한 發明考案品에 對하여는 補助金制度를 實施하여 發明人의 發明意慾을 向上 또는 勸獎하여 祖國近代化와 産業開發의 役軍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重大한 問題가 目前에 臨迫하였으니 이는 世界各國이 그 工業所有權競爭에 突入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이에 對하여 政府側의 特別配慮도 있겠으나 不遠 日本은 우리나라에 많은 特許權을 걸머지고 들어와 所謂 曰「韓日工業所有權協商」이란 名目으로 우리의 市場 또는 生産工場들을 威脅할 것이 明確한 것입니다. 이 重大한 視點에서 우리 政府와 發明人들은 우리의 權益과 工業所有權을 死守하기 爲하여 온갖 努力을 다할 것은 勿論이에 對한 對備策이 時急하며 緊要하다 함은 두말 할 나위조차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에 對하여 우리의 國法인 發明保護法은 어떻게 實施하고 있습니까.

이미 制定된지 오래이나 活用치 못하고 死文化가 되고 있으니 實로 遺憾之事이며 오늘의 國內 實情으로 祖國近代化와 産業經濟復興이 時急한 이때 産業復興의 役軍인 發明人들에 對한 保護育成을 爲한 特別措置가 없다시피한 것은 先進國의 科學者 및 發明考案者 厚待의 많은 事例에 比하여 너무나도 버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國家가 産業役軍인 發明人에 如斯한 育成策이 없다는 것은 크나 큰 國家的 經濟的 損失임을 깊이 認識直感하여 晚時之感은 있으나 前記한 具體的인 發明考案者와 發明事業의 保護育成策의 時急한 樹立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再三 強調하며 우리 發明人들의 愛國的이고 意慾的인 優秀한 發明品이 보다 많이 生産되어 國家産業發展에 큰 힘이 되는날 참된 韓國의 經濟復興과 祖國近代化도 이룩될 것이며 우리도 富強하여 經濟的 落後性에서 脫皮하고 先進國들과 같이 子孫萬代의 繁榮을 누릴 수 있는 樂土를 이 疆土위에 建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發明考案者들에 對한 國家的인 保護獎勵策과 發明事業의 指導育成을 通하여 國力의 培養과 經濟復興을 이룰것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

